

해인사자비원 ‘인수’ 산하 시설 운영한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서 결의
소속 종회의원 회원 제명키로

전국비구니회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을 인수하고 산하 복지시설 운영을 맡기로 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는 지난 7일 제2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 111명 가운데 위임 26명 포함해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활동 및 총무활동 보고, 장기사업 심의, 회원 징계의 건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 인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사업이다.

해인사자비원은 지난 6월29일 이사회를 열고 자비원 산하 시설을 조건 없이 전국비구니회에 증여하기로 했으며, 이날 비구니회는 자비원 인수와 운영을 위해 실무협약과 현장실사 등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해인사자비원 산하 광명노인요양원과 임대주택 형식의 유료동에는 비구니 스님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징계의 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지난 3월24일 전국비구니회 9차 총회에서 결의한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 제명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전원 사퇴 △종단은 전국비구니회의 결의사항을 수용할 것 등 3개항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결의해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환스님의 국가인권위원회 임명과 관련해서도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운영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기로 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화합추구’

한편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총 10명의 스님들은 운영위원회에 앞서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계환스님의 국가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유감 표명, 비구니 종회의원 제명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도의와 상식을 벗어나 비구니 승가 모두가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목전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분담금 합리적 개선’ 공청회 열린다

총무원 재무부·실무추진위, 19일
‘분담금 제도 현황과 문제점’ 주제

현행 분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종단과 불교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분담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발제는 김관태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맡았다. 향후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보완해 9월 중 2차 공청회를 갖고,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에 고기간을 거쳐 11월 열릴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분담금은 종단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종단 소속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중비이다. 2008년 중앙종회 재정분과위 주최로 열린 분담금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제출하는 예산서만을 기준으로 요율표를 근거로 정율제로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찰 등급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분담해야 한다” “본사와 말사를 구분하고 있는 분담률표를 통합하고 사설사암도 공찰과 동일하게 등급을 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 스님들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 종단 집행부는 사찰재정 투명화를 통한 ‘사찰 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기준을 세우고, 관련 제도 시행을 모의 적용했으며 그 방안을 같은 해 10월 교구본사주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제도를 좀 더 정비해 2018년께부터 적용기로 결의함에 따라, 현재 종단 재무부를 중심으로 분담금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 열릴 공청회 또한 이에 대한 일환이다.

향후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계기로 현재 사찰 규모나 사세 등을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향후 종단이 합리적으로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 관계자는 “분담금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직할교구신도회 ‘승보공양’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직할교구 재적 스님을 위한 승려복지기금 7469만5650원을 지정 기탁했다.〈사진〉도선사, 화계사, 진관사, 한마음선원 등 직할교구 사찰들은 그동안 매달 초하루 법회 등에서 모연함 설치 및 후원전화(ARS)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을 펼쳐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할교구의 후원이 앞으로 승려복지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후원금이 모여질 수 있는 종자돈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승가운영 3대 이념은 화합·청정·평등” ‘현대사회와 승가상’ 세미나

“시대 환경 달라도 변함없어”

부처님 당시와 현대사회는 시대나 환경은 다르지만, 결국 승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화합, 청정, 평등의 실현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역사 속 승가상’에 대해 고찰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는 승가운영에서 확인되는 3가지 대표 이념을 화합, 청정, 평등으로 꼽았다. 초기

승가는 전일출석, 만장일치의 갈마제도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가는 한편 구족계를 제정하고 포살을 통해 청정성을 확보해 갔다. 의식주를 공유하는데 있어 공동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했다. 이 교수는 “승가가 승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정능력’의 확보”라며 “자정능력을 확보한 승가는 내적으로는 화합과 청정, 평등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종교공동체로 존속 발전할 수 있고, 외적으로도 일반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허정스님은 “미래지향적인 승가상’에 대한 발제에서 바른 견해를 갖는

일과 함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통일운동 등 승가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샀다. 김 교수는 “승가와 세속이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목적이 깨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세속의 부조리에 대해 승가가 관여해야 한다”며 “이는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이자 나와 남을 가르는 이분법을 타파하는 동체대비의 실천, 감자와 약자,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사회적 이분법을 타파하는 정의의 구현”임을 피력했다.

여현경 기자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금 모연 명단

(2016년 6월22일~2016년 7월5일)

□기금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흥선스님) 5000만원 △부전 보문사 5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목스님) 4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정념스님) 200만원 △서울 봉은사 국장 스님 일동 100만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교구원장 현응스님 30만원 △부산 장금선원(주지 원여스님) 10만원 △박포순 10만원 △김건석 10만원 △청도 원각사(주지 해광스님) 10만원 △서광수 10만원 △이순구 10만원 △변규자 10만원 △문종욱 10만원 △김영주 5만원 △김상기 5만원 △최명옥 3만원 △박무현 3만원 △순병권 3만원 △윤찬목 3만원 △이화숙 1만원 △이윤숙 1만원 △임묘악선 1만원 △윤진호 1만원 △윤진석 1만원 (총 6387만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 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51기 사미(니)계 수계교육

8월21일~9월5일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제5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오는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16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개최한다. 이번 수계교육 입교대상자는 2016년 3월6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마치고, 입문교육과 소정의 교육을 마친 행자들이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자교육이 면제된 만19세 미만의 소년출가자도 입교할 수 있다. 수계교육 입교신청 마감은 오는 21일까지며, 해당 교구본사로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hhsim.or.kr) 내 총무행정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16일간 수계교육 기간에는 승의와 염불의식, 사미(니)율의에 대한 강의와 1보1배, 3보1배, 3000배 정진 등이 진행된다. 회향 하루 전인 9월4일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며, 합격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津寬寺 會主 無爲堂 眞觀스님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회주이신 무위당 진관스님께서 지난 7월 3일 입적하시어 7월 5일 진관사에서 법기문중장(法起門中葬)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불연을 따라 지극한 인연을 맺으셨던 제방의 큰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부대중께서 임우(霖雨)에 먼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한 분, 한 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우선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 올림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님 생전의 가르침을 더욱 받들어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불기2560(2016)년 7월 7일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比丘尼 無爲堂 眞觀스님 法起門中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法喜 合掌
無爲堂 眞觀스님 門徒 合掌

四十九齋 日程

초재		7월 9일(음 6월 6일)
2재		7월 16일(음 6월 13일)
3재		7월 23일(음 6월 20일)
4재		7월 30일(음 6월 27일)
5재		8월 6일(음 7월 4일)
6재		8월 13일(음 7월 11일)
49재		8월 20일(음 7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진관사 향적당에서 올립니다. 매 때마다 큰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 : 02-359-8410 진관사)

